

6. 성황신 김충 영정

성황신은 토지신으로 그 유래는 중국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모시기 시작하여 점차 각 고을에 성황당을 두고 봄·가을로 제사 지내는 풍습이 시작됐다. 고을을 지키는 성황신은 대개의 경우 마을수호에 공이 큰 인물인 경우가 많다.

이 영정은 주암면 주암리 산32번지에 있으며 순천 김씨 종중에서 보관·관리하고 있다. 영정은 비단에 채색하였으며 작가는 알 수 없고, 크기는 가로 57.8cm, 세로 102.8cm이다.

김충은 순천의 고을신으로 순천 김씨의 시조이다. 그림의 우측 상단에 '성황신 김충'이라는 목서가 쓰여 있다. 갑옷에 투구를 쓴 부장상으로 두 손에 창을 들고 있으며, 약간 우향의 검은색 의자에 앉은 전신상으로 정통 초상화법을 따랐다. 얼굴의 표정은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큰 코에 성근 수염의 과장된 표현으로 불교의 사천왕상과 유사하다. 이는 고을 수호신적 의미를 강조한 무속과 불교가 혼잡된 표현으로 조선 후기 민간의 회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. 또한 이 성황신의 제작수법에도 정통의 초상화법과 불화기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. 즉 신상의 자세와 가슴부분, 남색관복의 주름무늬, 의자 밑에 발을 놓는 족좌와 먹선, 목리문 등은 18~19세기 정통 초상화법이며 갑옷의 청색 잉어비늘 무늬와 가장자리 붉은색 띠 등은 같은 시기의 불화 제작수법이다. 이런 제작기법과 함께 그림의 표현력 또한 제격을 갖추고 있다.

이러한 성황신상은 민간의 무속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,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간회화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. 전라남도 지방민속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다.